

6조2천억 국비 확보에 사활

내일 도-국회 실무협의회 현안 해결 역할 분담 논의

도와 도 정치권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 6조2,000억원 달성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춘다.

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국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도에서는 김성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과장급 인사들이, 국회에서는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별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다. 특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시기별 조치계획과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역할분담안이 작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 내년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강릉 철도 등 총 17개 사업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경기장 진입도로 및 경기장 건설, 개·폐회식장 조성 등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교량과 속초항 항만 개발, 묵호항 재개발 사업,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시·군 현안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인명수색 지원임

■ 주요 국비 확보 현안사업

사업명	소관 상임위	2016년도 소요액 (단위 : 억원)	
춘천~속초 철도 건설	국토교통	50	
여주~원주 철도 건설	"	12	
원주~강릉 철도 건설	"	8,000	
고속도로 건설	동서 동해	"	4,862
		"	1,005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교육문화체육관광	1,97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	1,653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조성	"	229	
동해항 3단계 개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90	
묵호항 재개발사업(1단계)	"	27	
속초항 항만 개발	"	210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교육문화체육관광	150	
문화올림픽 추진	"	100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교량 건설	"	200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297	
국도 5호선(원주~철원) 확·포장	국토교통	6	

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강원 소방헬기 대체 구매 예산 230억원의 국비 매칭 비율도 관건이다.

도와 도의회는 강원소방헬기가 국가 사무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소실된 만큼 소방헬기 구매비용 230억원 중 보험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동계올림픽 대회지원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사업과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충우 국회 강원도보좌진협의회장은 "정부 예산에 도 현안 관련 사업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국회의원 과 도와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도 현안이 적극 반영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건설협회 도회장 오늘 신임 회장 선출

오인철·한상준 후보 경합

도내 건설업계 수장이 새로 뽑힌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정동기)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춘천 배어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도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로는 기호 1번 오인철(59) 흥천

태성종합건설 대표와 기호 2번 한상준(55) 강릉 우림토건 대표가 등록했다.

총 103명의 대표회원 중 2분의 1 이상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신임 도회장으로 선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진다. 하위윤기자 faw4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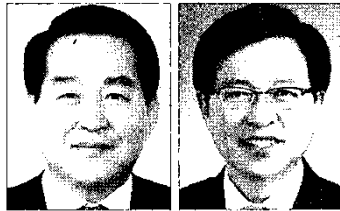
오늘 건설협 도회장 선거... 양자 대결

오인철·한상준 대표 출마
정총서 104명 투표로 결정

강원도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 도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 경선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선거결과에 지역내 건설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설협회 도회장은 종합건설 600여개의 회원사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협회 도회, 설비건설협회 도회 등 7개 건설관련 단체를 아우르는 강원건설단체 연합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위상이 높아 투표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오인철 (59) 흥천 태성종합건설 대



오인철 대표 한상준 대표

표와 한상준 (55)강릉 우림토건 대표 등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표회원 104명이 투표를 실시한다.

오인철 대표는 흥천출신으로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도체육회 이사, 건설협회 흥천군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강원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협회 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대표는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저지 △대형공사 분할발주 지역제한 유도 △협회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을 공약했다.

한상준 대표는 강릉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가톨릭관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수료했다. 강릉로타리클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강릉원주대 발전기금재단 감사를 맡고 있다. 한 대표는 강원도회 통상회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추진 △건설법의 자본금 및 기술자 등록 기준완화 추진 △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영서와 영동,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당일에도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만큼 막판 조율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땅에서 거두는 든든한 열매, 농지에 뿌린 사랑,
농지연금으로 거두세요!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가 평생연금보장
상담전화 **1577-7770** www.fplove.or.kr
Kf은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춘천상공회의소
제22대 **김대호** 회장님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춘천상공회의소 회원일동
회장 김대호



‘표준시장단가’ 조사 부실 우려

관리센터 설립 지지부진, 예산도 확보 안돼... 9월 발표 차질 가능성 커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새롭게 도입된 표준시장단가 조사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조사기관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실적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전면 개편하고, 제대로 된 표준시장단가 조사와 관리를 위해 건설연 내에 별도의 독립된 센터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설연 내 조직이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는 물론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업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훈령 개정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차질

이 빚어지고 있다. 조사기관의 공식 출범 시기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전담기구를 만들려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제대로 된 조사에는 비용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기존 실적공사비 관련 예산만 잡혀 있어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아 마음이 급하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3월 첫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9월에 두 번째로 조사와 발표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조사기관조차 없는 현상향을 고려하면 9월 발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역시 조사와 발표야 하겠지만,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조사비용 등 관련예산 책정에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근시안적 발상이라

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자료가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한시적 배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예산 문제로 표준시장단가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건설원가관리포럼’(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50위 이내 건설사의 견적·기술부서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해 정부의 표준시장단가와 품셈관련 업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향후 조사기관의 시공단가 등 조사에 협조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공사비 단가 시정을 건의해놓고도 해당 현장을 찾지 못하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정석기자 jskim@

건협 강원도회, 오늘 57회 정기총회... 21대 회장 선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 동기)는 25일 오전 11시30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제21대 회장 선거도 치러진다.